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작품분석

내신대비

서술형

변형문제



문학(상)

분 석 | EBS 수능특강의 모든 작품(교과서 개념 학습 포함) 완전 분석

내 신 | 작품 분석 내용을 문제화하여 학교시험 완벽대비

서술형 | 작품별로 학교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다양한 서술형문제 수록

변 형 | 수능출제원리에 맞게 변형된 내신형/수능형 문제 수록

집필진

박주동 송파중로학원
김수철 인천아름학원
권경근 성북중로학원
김형근 송파중로학원
김대우 송파중로학원
어주경 송파중로학원
정기상 송파중로학원
한영호 송파중로학원
김보라 보리국어전문학원
임재호 성보고등학교

검토진

강갑신 청림학원
강영진 참글국어학원
강승현 동탄앞산국어
강원국 한수위국어
강원희 목동 강원희 국어
강진선 탑아카데미학원
고대희 고대희국어교육원
고영일 국일국어학원
곽선우 대연해마루
곽성범 생각의차이
권세현 여흥국어
권은화 THE(더)오름학원
권진희 국어
김 건 선택)김건국어논술학원
김건아 가운데누리
김경모 김경모국어학원
김경원 버리국어논술학원
김경주 김경주국어논술학원
김광철 다시국어
김규리 대신적토마학원
김기성 구평)책 읽는국어학원
김기주 목동 김기주국어논술
김기희 김기희국어학원
김나나 국어와나
김남진 김남진국어학원
김대영 수성 구일
김만수 명륜)연세로나국어학원
김미경 주례)명문학원
김미옥 들을 잡는 학원
김미정 풍납청산학원
김상춘 정음국어학원
김상희 춘천대한논리속독학원
김석영 이상국어학원
김선황 김선황국어논술학원
김선희 책벌레
김소윤 오름국어
김수연 스페르타국어
김수진 오창오름국어
김승리 김승리 국어
김영은 조음)에이플러스학원
김육경 목동 1교시 국어영어
김유규 평촌 기파랑문학원
김윤재 국일국어학원
김장현 최현성국어영어학원
김종덕 갯국어
김준기 청어람국어학원
김지유 샘이깊은국어
김지훈 더케이국어
김진아 가운데누리
김진영 해운)김진영국어학원
김재민 마산 삼성엘리트학원
김태동 호암국어학원
김태환 섀트럴국어
김태경 동탄앞산국어
김혜미 수지 국물기파랑학원

김희동 공감국어학원
김희정 세움아카데미학원
남궁수연 동촌 참배움터학원
남성호 정음국어학원
남준현 방화 배어날수학원
노교상 방화 한세학원
노윤정 더 프라이머시학원
노희성 천로하나학원
노희용 분평종로영학원
도 담 한빛국어학원
류도환 동래)류도환국어학원
박경은 백번의 날갯짓 국어학원
박경화 동촌 제다움 학원
박만숙 신정 연세학원
박영희 중리삼성엘리트학원
박미선 평촌 기파랑문학원
박상일 박상일영어학원
박선훈 이데이국어학원
박성훈 토피아 아카데미
박세영 박세영국어
박순주 청원 더국어학원
박시홍 부천 사계국어학원
박 영 서강학원
박영규 연어국어논술학원
박은정 몽골찬국어
박정수 박정수 국어
박진운 박진운 국어전문학원
박창현 탑학원
박현순 KSI학원
박현진 대신)리만국어학원
반동환 반동환국어학원
방동진 이투스&솔빛국어대표
방유정 용호)해음국어
배운호 구루학원
박승재 우리모두의학원
백우름 송원학원
사공학 사공 국어
서희주 교원 더퍼스트캠퍼스 강남진해학원
설규환 강남대성학원
설호준 청암국어학원
손오심 손오심 국어전문학원
송기남 송기남국어학원
송준호 송준호국어연구소
신민진 열람국어
신새벽 해운)신새벽국어학원
신윤경 개금)국제학원
신은숙 대성국어학원
신은지 BMA 유명학원
신종수 영도)세종학원
심진섭 차오름
안상숙 오디세이학원
안종광 김포개벽학원
안지원 대영학원
양지혜 이엠스터디학원
엄지영 명지)프라이밍학원

유동완 다다학원
유병우 아이유국어학원
유선호 영광의아침
유재연 유재연국어
유지연 유지연빛글국어학원
유지원 제세현국어수 입시학원
윤귀성 윤학당
윤선희 진국어사회
윤성주 참글영어국어학원
윤순현 천지인논술국어학원
윤혜선 더국어학원
윤혜옥 국과사학원
이관철 더포스국어학원
이규득 강토국어
이규은 마두/비전트리
이기령 수지 국물기파랑학원
이명숙 바름글
이미선 이미선국어
이미수 신서울학원
이미영 다울 국어
이상덕 맥스학원
이서현 부천 사계국어학원
이석호 이석호국어학원
이선애 나우국어논술학원
이선주 이선주국어학원
이선화 방화 하이탑학원
이성국 이음국어학원
이소하 특별한이학원
이시은 이시은논술학원
이아현 목동 에듀플러스
이영순 절산 한우리
이윤경 2세기 연세학원
이윤수 4in1학원
이은영 이은영국어학원
이은정 수완국어논술학원
이은정 이은정행복한국어학원
이재윤 ㈜연희당
이주경 학창창생학원
이주현 자음국어
이주현 당감미주학원
이지선 BMA 유명학원
이지원 삼성엘리트학원
이지혜 이지국어학원
이진희 목동 솔빛국어연구소
이창용 에듀핏학원
이청화 부천 사계국어학원
이택희 대영학원
이현국 HG국어논술학원
이현욱 명륜)인국어학원
이 형 이형국어
이혜란 오송재움학원
이흥민 해음국어전문학원
이희찬 차오름
임현승 티클래스학원
임현주 신월 MT

장수진 이레국어
장은영 노포곰 생각터학원
장종훈 여민력 국어
전혁진 목동 장준학국어학원
정범진 공감 국어학원
정연우 송강 국어
정재민 목동 솔빛국어연구소
정지수 마산 삼성엘리트학원
정 훈 정훈국어학원
조우실 지혜의숲학원
조은자 화곡 강서대성학원
조은지 한국학원
조원희 채움학원
조현미 봉산국어논술개달기
조호연 부천 사계국어학원
주경은 우선국어
지은영 지은영논술국어학원
진수빈 목동 솔빛국어연구소
진원호 YH 학원
차민기 비상한국어논술전문학원
차환진 버리국어논술학원
채원석 수지 국물기파랑학원
최민식 목동 솔빛국어연구소
최복수 최복수국어
최성림 하이스카이학원
최성욱 최강국어
최승진 수지 국물기파랑학원
최안우 최선국어
최유정 최유정국어
최윤희 해운)최선생국어학원
최정윤 최정윤국어
최진욱 옥샘국어학원
최창국 최강국어
탁형준 수지 국물기파랑학원
한광수 글나라국어
한민정 한빛국어
한보람 송원 공부연구소
한상철 한맥국어학원
한성희 로이컨스학원
한은정 구서)다니엘학원
한차현 수지 국물기파랑학원
한효성 학림학원
허천일 기양 행복한국학원
홍경란 목동 FM국어
홍기식 토피아아카데미
홍미숙 반송)대경학원
홍윤석 공감 국어학원
홍인지 홍인지 국어
홍정우 로퀀스 국어
홍현숙 홍선생국어논술
황윤철 정인 국어
황인학 우분투국어학원
황희진 부천 사계국어학원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상)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상)

100점 계획표

* **1주차 (4주전)**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들의 배경지식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나 부분을 되짚어 정리한다.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경험이 무슨 일을 할지 말해 주고, 자신감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 3주차 (2주전)

FBS 수능특강의 변형 문제, 내신형 문제, 서답형/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각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였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취약한 부분은 그때그때 체크하여 보강한다.

MON	월	일	TUE	월	일	WED	월	일	THU	월	일	FRI	월	일		
SAT					월	일	SUN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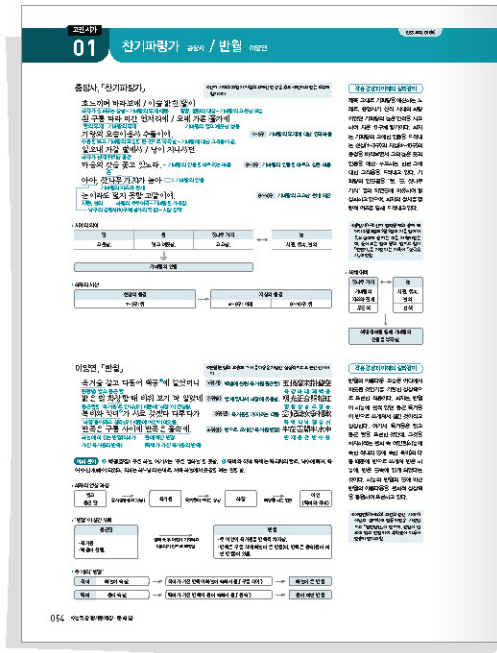
* 4주차 (1주전)

각 작품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점검한다.
시험 당일까지 암기해야 할 부분은 따로 노트에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MON	월	일	TUE	월	일	WED	월	일	THU	월	일	FRI	월	일		
SAT					월	일	SUN								월	일

구성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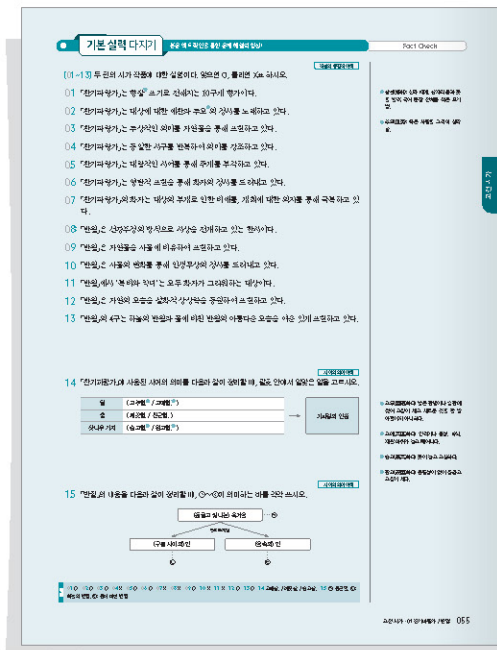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자습서 이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패턴화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단계별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작품 분석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을 도표, 도식 등의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도표로 정리하거나 도식화하여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실력 더하기'를 통해 기본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시의 경우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시를 이야기로 풀기'를, 고전 시가의 경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를 현대어로 풀기'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 실력 다지기

문제를 패턴화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을 OX 표시하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 작품의 특징이나 내용을 작품에서 찾기, 기호로 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 작품에 사용된 시어나 소재의 의미 등에 관한 내용을 선으로 연결하기, 빈칸 채우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EBS 수능특강 작품 목록

PART 1 교과서 개념 학습

갈래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현대시] 1940년대	추일서정 (김광균)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 감	010
02	[고전 시가] 조선 후기	백구야 놀라지 마라 (김천택)	임금에게 버림받고 자연으로 들어가 백구와 함께 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시조임.	014
	[고전 시가] 조선 후기	백초를 다 심어도 (작자 미상)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인 젓대와 살대 그리고 붓대를 이별의 상황과 연관 짓는 독특한 시적 발상을 통해 언어유희와 이별 후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조임.	
	[고전 시가] 조선 후기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자 미상)	미운 임은 반갑게 맞이하고 고운 임은 쫓아 버리는 개를 원망하며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사실시조임.	
03	[현대 소설] 1980년대	해산 바가지 (박완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자세 /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비판	018
04	[고전 소설] 조선 후기	눈을 쓸며 옥소선을 옛보다(임방)	야담으로 전해지던 양반가 도령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가 후에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성취를 통해 근대적 가치관을 드러냄.	023
05	[극] 1960년대	만선 (천승세)	만선에 대한 한 어부의 집념과 좌절	028
06	[현대 수필] 1990년대	연경당에서 (최순우)	연경당의 한국적 아름다움과 가치	033
07	[현대 소설] 1950년대	곡예사 (황순원)	피난살이의 어려움과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038
08	[극] 1970년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라(최인호)	온달과 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043
09	[현대시] 1960년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부패한 권력과 사회의 부조리에 반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048

PART 2 고전 시가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삼국 시대	찬기파랑가 (총담사)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로, 총담사가 신라 시대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임.	054
	조선 중기	반월 (이양연)	반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늘에 걸린 옥거울이 반으로 쪼개져 생겼다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한시임.	
02	고려 시대	사모곡(작자 미상)	어머니의 사랑 예찬	060
	고려 시대	오관산 (문충)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	
	조선 전기	오륜가(작자 미상)	아버이에 대한 효	
03	고려 시대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준오)	간신 신돈의 횡포 풍자	066
	조선 중기	말 없는 청산이오 (성혼)	자연과 더불어 근심 없이 살고 자 하는 마음	
	조선 후기	대천 바다 한가운데 (작자 미상)	참연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 주장	
04	조선 전기	마음이 어린 후이니 (서경덕)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072
	조선 후기	연 심어 실을 뽑아 (김영)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함.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5	조선 후기	마음이 지척이면 (작자 미상)	서로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마음의 중요함	078
	조선 후기	가슴에 구멍을 등시렇게 뚫고 (작자 미상)	가슴에 구멍을 뚫고 새끼줄을 넣어 마구 흔들어 대는 상황, 즉 극한 상황은 참을 수 있지만 입을 여의고는 못 살겠다며, 입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사실시조임.	
06	조선 중기	단가육장 (이신의)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마음	084
07	조선 중기	우활가 (정훈)	자신의 우활함에 대한 탄식	090
08	조선 후기	봉산곡 (채득기)	왕명을 받들어 먼 길을 떠나는 신하의 심회	097
09	조선 후기	농가월령가 (정학유)	각 달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세시 풍속 소개	104
10	조선 후기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친정에 온 여인과 사촌 동생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해 노래하고 있는 민요임.	111
11	조선 후기	우부가 (작자 미상)	타락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	117
12	조선 후기	제비가 (작자 미상)	제비 타령	124
13	조선 중기	기녀반 (허난설헌)	외롭고 불행한 처지에 대한 한탄	130
	조선 후기	앞 못에 든 고기들아 (작자 미상)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대한 한탄	
	조선 후기	발매는 소리 (작자 미상)	고단한 노동과 어머니를 여읜 슬픔	

PART 3 현대시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1920년대	초혼 (김소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138
02	1960년대	이별가 (박목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정한	144
03	1930년대	노정기 (이육사)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한 회고	150
04	1980년대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	156
05	1930년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이육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갈 수 없는 비애	162
06	1990년대	흑백 사진-7월 (정일근)	유년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	168
07	1930년대	성탄제 (오장환)	생명의 순수성과 이를 파괴하는 폭력적 세계 사이의 대립을, 총에 맞은 어미 사슴의 곁을 지키는 어린 사슴의 모습을 통해 표현함.	174
08	1950년대	새 1 (박남수)	생명의 순수함,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과 이와 대비되는 문명의 파괴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180
09	1930년대	장수산 1 (정지용)	탈속적 세계에 동화되려는 염원	186
10	1960년대	고고 (김종길)	북한산 산봉우리가 눈에 살짝 뒤덮인 모습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경지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노래함.	192
11	1930년대	거문고 (김영랑)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	198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12	1980년대 굴동리 일박 (곽재구)	다산의 삶을 통해 바라본 부정적 현실 인식	다산 정약옹이 유배 오면 길을 되짚어 걸으며 굴동리에서 1박을 하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지성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노래함.	204
13	1930년대 북방에서 -정현웅에게(백석)	북방에서 느끼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상실감	북방(만주)을 잃어버리고 안일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모습과, 일제 강점기의 슬픔과 상실감, 옛 영토에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표현함.	210
14	1950년대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의 염원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이질적인 제재를 통해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형상화하며,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함.	216
15	1950년대 화제개현 (조지훈)	생명 탄생의 신비 / 물아일체의 신비로운 경험	제목 그대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관찰하며 경험한 물아의 감흥을 노래함.	222
	1990년대 누에 (최승호)	존재의 성장 과정과 그 의미	누에의 생태를 빌려 고통을 견디고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함.	
16	1950년대 낙화 (이형기)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인간의 이별을 꽃잎이 떨어지는 낙화 현상에 빗대어, 인간도 이별을 통해 시련을 수용하면서 성숙해진다는 성찰을 드러냄.	228
17	1960년대 과목 (박성룡)	과목을 통해 느낀 자연의 경이로움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을에 결실을 이룬 과목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대해 느낀 경이로움과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깨달음을 드러냄.	234
18	1960년대 산 (김광섭)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	‘산’이 가진 자아롭고 다정한 모습뿐 아니라 울적해하거나 성내는 인간적인 모습 등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보여 줌.	240
19	1990년대 가을 띄갈나무 숲 (이준관)	생명체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띄갈나무 숲의 아름다움	가을 띄갈나무 숲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애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평화를 노래함.	246
20	1990년대 장자를 빌려 -원통에서(신경림)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대조하여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을 드러냄.	252
21	2000년대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고재중)	겨울 감나무를 통해 깨달은 생명의 원리와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면서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며 얻은 감동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함.	258

PART 4 고전 산문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연대 미상 천자를 이긴 아이 (작자 미상)	어른을 뛰어넘는 아이의 지혜	‘아이의 지혜’, ‘천자의 시험’ 등을 모티브로 한 민담으로, 천자의 어처구니없는 시험에 맞서 아이 역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대응한다는 내용임.	266
02	연대 미상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작자 미상)	잔꾀를 이용한 사기꾼의 행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기꾼 유형의 종이 상전을 골탕 먹이고 도주하는 내용의 민담임.	272
03	조선 중기 수성지 (임제)	인간의 심적 조화의 필요성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한 천군(天君)이 수심에 빠져 있다가 술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의인체 한문 소설임.	278
04	조선 중기 위경천전 (권필)	청춘 남녀의 비극적 사랑	젊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며 이별하고, 결국 남녀 주인공이 모두 죽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한문 애정 소설임.	286
05	조선 중기 달천몽유록 (윤계선)	임진왜란의 참상 및 전쟁의 공과에 대한 평가	‘꿈’을 매개로 임진왜란 때 전사한 충신들을 추모하며 임진왜란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는 몽유록계 한문 소설임.	293
06	조선 후기 조웅전 (작자 미상)	조웅의 영웅적 일대기 / 진충보국과 자유연애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조웅이 이두병을 처단하는 내용의 조선 시대 대표적인 국문 영웅 소설임.	300
07	조선 후기 이대봉전 (작자 미상)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영웅의 활약상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과 여자 주인공 장애황의 영웅적 활약상을 담은 영웅 소설로, 여자 주인공의 서사가 더 두드러짐.	307
08	조선 후기 춘향전 (작자 미상)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항거	판소리로 불리며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게 소설로, 양반 자체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임.	315
09	조선 후기 서대주전 (작자 미상)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 풍자	조선 말엽 타락한 지방 토호를 상징하는 쥐와 선량하고 정직한 평민을 상징하는 다람쥐를 통해 조선 후기 관리들을 풍자한 우화 소설임.	322
10	조선 후기 정율선전 (작자 미상)	정율선과 유추연의 사랑의 성취와 권선징악	남녀 주인공이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의 불화와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가정 소설임.	329
11	조선 후기 삼선기 (작자 미상)	관념적인 삶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현실 안목의 확립	도덕 군자의 삶을 살아가던 남주인공 이춘풍이 두 기생을 만나 절계를 꺾고 기생의 우두머리가 되는 내용의 풍자 소설임.	336
12	조선 후기 송경운전 (이기발)	한 음악가의 생애와 예술혼	조선 시대 비파의 고수였던 실존 인물 송경운의 행적과 그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담은 전(傳)임.	343

PART

1

개념 학습

- 01. 추일서정_ 김광균
- 02. 백구야 놀라지 마라_ 김천택 / 백초를 다 심어도_ 작자 미상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_ 작자 미상
- 03. 해산 바가지_ 박완서
- 04. 눈을 쏘며 옥소선을 엮보다_ 임방
- 05. 만선_ 천승세
- 06. 연경당에서_ 최순우
- 07. 곡예사_ 황순원
- 08.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_ 최인훈
- 09.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_ 김수영

01

추일서정 _ 김광균

※ 가을 풍경에서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도시적 감각과 회화적 이미지로 노래한 작품이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①의 지폐

쓸모없음, 무가치함, 초라함. → 쓸쓸함—은유

포화(砲火)^②에 이즈러진

폐허가 됨.

도론^③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벅타이처럼 풀어져

초라함, 황량함—직유

일광(日光)^④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일광 → 폭포: 비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증기—사라져 감, 허무함. → 쓸쓸함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열차—도시적 소재

포플라 나무의 근육(筋骨)^⑤ 사이로

양상한 나뭇가지—의인화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도시적 소재

황량함, 비정함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쇠로 만든 울타리

그 위에 세로팡지(紙)^⑥로 만든 구름이 하나

현대적 소재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시적 허용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함.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황량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 황량함에 따른 무의미한 행동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풍경 → 장막: 비유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좌절, 소멸—황량함에서 벗어나지 못함. → 하강의 이미지

공장 지대의 황량한 풍경

1~11행 황량한 가을 도시의 풍경

• 공감각적 이미지 ① 청각(풀벌레 소리의 시각화(자욱—한) ② 청각(풀벌레 소리의 촉각화(발길로 차며) • '소리'를 구체적인 물건(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함.

12~16행 황량한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감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다양한 도시적 소재와 회화적인 이미지, 비유적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가을날의 도시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1~11행에서는 화자의 눈에 비친 가을 풍경을 도시적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2~16행에서는 그 정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을의 소재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낯설게 만들어서 감각적 신선함을 획득하고 있다. 기계적, 물질적 이미지와 일상적 관념을 깨뜨리는 낯선 비유를 통해 서구 도시 문명을 나타내는 소재나 관념 등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불안감,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담겨 있다.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완전하게 억제하지 않고 '황량', '고독' 등의 시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서정적인 느낌을 조성하고 있다.

* 김광균(1894~1899): 1930년대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 도시적 감수성과 문명 비판적인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사회적 내면 공간을 참신한 비유적 기교와 세련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어휘 풀이 ① 망명정부(亡命政府): 다른 나라에 의한 정복, 전쟁, 혁명 따위로 외국으로 피신한 정객들이 세운 정부. ② 포화(砲火): 총포를 쏠 때 일어나는 불. ③ 도론: 도른(폴란드의 도시 이름). ④ 일광(日光): 해의 빛. ⑤ 근육(筋骨): 근육과 뼈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⑥ 세로팡지(紙): 셀로판지. 셀로판 표면에 수지(樹脂)나 나이트로셀룰로스 따위를 발라 만든 종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며, 공작용으로 씀.

• 표현상의 특징

- 시선의 이동에 따라 풍경을 묘사함: 낙엽 → 길 → 급행차 → 포플라 나무가지 → 공장의 지붕 → 구름
- 회화적 이미지, 다양한 비유적 표현,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환기함.
- 도시적: 미국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함: 폴—란드, 지폐, 포화, 도론 시, 벅타이, 담배 연기, 급행차, 공장의 지붕, 철책, 세로팡지
- 도시적 풍경을 황량하게 묘사하여 문명 비판 의식을 드러냄.
- 소멸: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황량함을 표현함: 이즈러진, 사라지고, 기울어진, 잠기어
-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청각(풀벌레 소리의 시각화(자욱—한) / 청각(풀벌레 소리의 촉각화(발길로 차며)
- '소리'를 구체적인 모양을 갖춘 물건처럼 표현함: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소리를 발로 찰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함.

• 비유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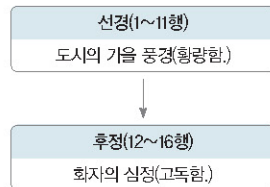
원관념	보조 관념	공통된 성격	특징
낙엽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쓸모없음, 무가치함.	쓸쓸함.
길	구겨진 벅타이	구불구불함.	초라함.
급행차(의 증기)	담배 연기	모양이 비슷함.	사라져 감.
포플라 나무(의 가지)	근골	양상함.	황량함.
공장의 지붕	흰 이빨	모습이 비슷함.	황량함.

시를 이야기로 풀기

1~11행 가을의 도시 풍경은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해.

12~16행 황량한 풍경 속에 있으니 황량한 생각만 하게 돼. 그런 느낌을 떨치려 해 보지만 떨쳐지지 않고 쓸쓸함과 고독감만 느끼게 되네.

•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



[01~12]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 01 가을 풍경에서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도시적 감각과 회화적 이미지로 노래하고 있다.
- 02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3 특정 청자를 설정하여 화자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고 있다.
- 04 시선의 이동에 따라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05 낮설고 참신한 비유를 동원하여 소재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06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07 도시적·이국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08 도시적 풍경을 황량하게 묘사하여 문명 비판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 09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 10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소리'를 구체적인 모양을 갖춘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다.
- 11 소멸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12 '돌팔매'는 황량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작품의 종합적 이해

★ 애수(哀愁):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시름.

★ 환기(喚起)하다: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

★ 이국적(異國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특징적인.

표현상 특징 이해

[13~17] 이 작품의 시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13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직유 / 은유^{*})
- 14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직유 / 은유)
- 15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의인화 / 과장)
- 16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촉각의 청각화 / 청각의 촉각화)
- 17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상승의 이미지 / 하강의 이미지)

★ 직유(直喻)와 은유(隱喻)

• 직유: 직접 비유하는 방법.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 '~양'과 같은 표현으로 연결하여 직접 비유한다.

• 은유: 숨겨서 비유하는 방법. 직유법과는 달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서 원관념을 설명하거나 묘사한다. 원관념과 비유되는 보조 관념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원관념)는 B(보조 관념)이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유적 표현 이해

18 이 작품에 사용된 비유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원관념	보조 관념	공통된 성격	특징
낙엽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쓸쓸함.
길	구겨진 넥타이	구불구불함.	(㉡)
(㉢)	담배 연기	모양이 비슷함.	사라져 감.
포플라 나무(의 가지)	(㉣)	양상함.	황량함.
공장의 지붕	(㉤)	모습이 비슷함.	황량함.

정답

01 O 02 O 03 X 04 O 05 X 06 O 07 X 08 O 09 X 10 O 11 O 12 O 13 은유 14 직유 15 의인화 16 청각의 촉각화
17 하강의 이미지 18 ㉠: 쓸모없음 / 무기치함, ㉡: 초라함, ㉢: 급행차(의 증기), ㉣: 근골, ㉤: 흰 이빨

2020 6월 모평

표현상 특징 이해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변주(變奏)하다: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소재·형태·방식 따위를 변형하여 표현하다.

수능특강 엮보기 문제

시어 및 시구의 의미 이해

2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구깃구깃한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군.
- ③ ‘포플라 나무’의 가지를 ‘근골’로 표현하여 가을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연상되는 황량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화자가 ‘돌팔매’를 띄우는 ‘허공’은 화자의 ‘황량한 생각’과 연결되어 공허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⑤ 화자가 띄운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무상감(無常感):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출제 예감

작품 간의 비교 감상

3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내 끼인 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석양에 짙 앓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노매.

— 조현*

- ① 윗글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윗글은 도시 문명에 대한, 〈보기〉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여, 〈보기〉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윗글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데 반해, 〈보기〉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의성어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데 반해, 〈보기〉는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조현, 「지당에 비 뿌리고」

갈래	평시조
성격	애상적
주제	자연에서 느끼는 애상감과 고독
특징	객관적 상관물(빈 배, 짙 앓은 갈매기)을 통해 화자의 정서(외로움과 고독)를 간접적으로 제시함.

◆ 지당(池塘): 연못.

◆ 양류(楊柳): 버드나무.

◆ 객관적 상관물(客觀的相關物): 화자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대상(소재)으로서 화자의 정서나 사상(생각)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사물이나 정황, 사건 등을 말한다.

서답형 문제

4

윗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모양이 없는 것을 구체적 모양을 갖춘 물건처럼 표현하여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성격	회화적, 감각적, 주지적
주제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구성	1~11행: 황량한 가을 도시의 풍경 12~16행: 황량한 도시에서 느끼는 고독감

*주지시(主知詩):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성이나 지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쓴 시.

작품의 전개 과정

선경(1~11행)	후정(12~16행)
도시의 가을 풍경(황량함.)	화자의 심정(고독함.)
낙엽 → 길 → 급행차 → 포플라 나뭇가지 → 공장의 지붕 → 구름	황량한 생각, 고독한 반원

특징 정리

-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시선의 이동에 따라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낙엽 → 길 → 급행차 → 포플라 나뭇가지 → 공장의 지붕 → 구름
- 근경과 원경을 교차하면서 가을날의 도시 풍경을 회화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1~7행	‘낙엽’이 떨어지는 근경 + ‘급행차’가 들을 달리는 원경
8~11행	‘포플라 나무’가 서 있는 근경 +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원경

- 다양하고 참신한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가을
- 도시적·이국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폴-란드’, ‘지폐’, ‘포화’, ‘도운시’, ‘넥타이’, ‘담배 연기’, ‘급행차’, ‘공장의 지붕’, ‘철책’, ‘세로판지’
- 도시적 풍경을 황량하게 묘사하여 문명 비판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황량한’, ‘고독한’
- 소멸·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표현을 통해 황량함을 드러내고 있다. ▶ ‘이즈러진’, ‘사라지고’, ‘가을어진’, ‘잠기어’
-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자욱—한 폴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촉각화
- ‘소리’를 구체적 모양을 갖춘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다. ▶ ‘자욱—한 폴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작품 감상

제목(추일서정: 가을날의 서정) 그대로 가을 풍경에서 느끼는 서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다양한 도시적 소재와 회화적인 이미지, 비유적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가을날의 애수와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1~11행에서는 화자의 눈에 비친 가을 풍경을 도시적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2~16행에서는 그 정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을의 소재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낯설게 만듦으로써 감각적 신선함을 획득하고 있다. 기계적, 물질적 이미지와 일상적 관념을 깨뜨리는 낯선 비유를 통해 서구 도시 문명을 나타내는 소재나 관념 등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불안감,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담겨 있다.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완전하게 억제하지 않고 ‘황량’, ‘고독’ 등의 시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서정적인 느낌을 조성하고 있다.

*상투적(常套的): 늘 써서 버릇이 되다
시피 한 것.

*이면(裏面):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비유적 표현

원관념	보조 관념	공통된 성격	특징
낙엽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쓸모없음. 무가치함.	쓸쓸함.
길	구겨진 넥타이	구불구불함.	초라함.
급행차(의 증기)	담배 연기	모양이 비슷함.	사라져 감.
포플라 나무(의 가지)	군굴	양상함.	황량함.
공장의 지붕	흰 이빨	모습이 비슷함.	황량함.

PART

2

고전 시가

01. 찬기파랑가_총담사 / 반월_이양연
02. 사모곡_작자 미상 / 오관산_문충 / 오륜가_작자 미상
03. 구름이 무심탄 말이_이존오 / 말 없는 청산이오_성혼
대천 바다 한가운데_작자 미상
04. 마음이 어린 후이니_서경덕 / 연 심어 실을 뽑아_김영
05. 마음이 지척이면_작자 미상 /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_작자 미상
06. 단가육장_이신의
07. 우환가_정훈
08. 봉산곡_채득기
09. 농가월령가_정학유
10. 시집살이 노래_작자 미상
11. 우부가_작자 미상
12. 제비가_작자 미상
13. 기녀반_허난설헌 / 앞 못에 든 고기들아_작자 미상
발매는 소리_작자 미상

01

찬기파랑가 _ 총답사 / 반월 _ 이양연

총답사, 「찬기파랑가」

*신라시대의 화랑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추모·예찬하고 있는 10구체 향가이다.

흐느끼며 바라보며 / 이슬 밝힌 달이

화자가 슬퍼하는 상황 - 기파랑의 부재 때문 광명, 염원의 대상 -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 모래 가른 물가에

달의 부재 = 기파랑의 부재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1~5구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수풀을 보고 기파랑의 모습을 본 것으로 착각함 -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이 큼.

일오내 자갈 벌에서 / 낭이 지니시던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

마음의 갖을 쫓고 있노라. -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는 마음

6~8구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 기파랑의 인품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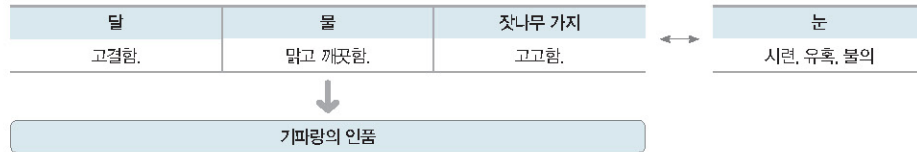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곁잡이여.

9~10구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 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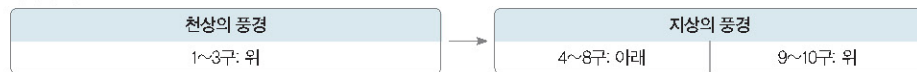
시련, 불의 화랑의 우두머리 - 기파랑을 가리킴.

낙구의 김탄사(10구체 향가의 특징) - 시상 집약

• 시어의 의미



• 화자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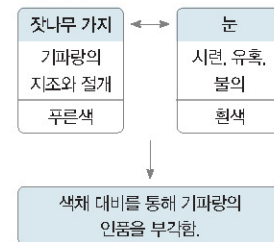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제목 그대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로, 총답사가 신라 시대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화자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드러내는 천상(1~3구)과 지상(4~10구)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높은 뜻과 인품을 예찬·추모하는 한편 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기파랑의 인품됨을 ‘달, 물,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으며, 화자의 정서를 영탄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총답사?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이룩보살에게 올리는 예를 거행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왕의 명으로 향가 「안민가」를 지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함

• 색채 대비



이양연, 「반월」

*반월(반달)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한시이다.

옥거울 같고 다듬어 벽공^①에 걸었더니

1구(7) 벽공에 걸린 옥거울(동근달) 玉鏡磨來掛碧空

원관: 밝고 동근 달

옥경 마래 괘 벽공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취 보기 딱 알맞네

2구(8) 밝게 빛나서 화장에 유용함. 明光正合照粧紅

동근달을 ‘옥거울’로 인식했기 때문에 ‘화장’이 연상됨.

명광 정합 조장 홍

복비와 직녀^②가 서로 갖겠다 다투다가

3구(전) 옥거울을 가지려는 다툼 宓妃織女爭相取

‘화장’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이 떠오름.

복비 직녀 쟁상 취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속에.

4구(결) 반으로 쪼개진 옥거울(반월) 半在雲間半水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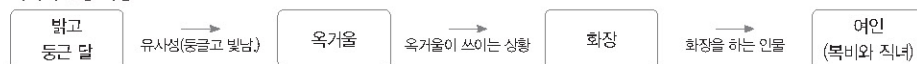
하늘에 떠 있는 반월(직녀가)

반재운간반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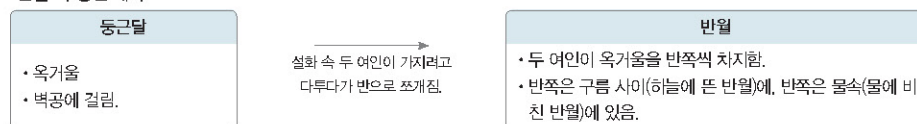
물에 비친 반월 (복비가 가진 옥거울의 반쪽)

어휘 풀이 ① 벽공(碧空): 푸른 하늘. 여기서는 ‘푸른 밤하늘’을 뜻함. ② 복비와 직녀: 복비는 복희씨의 딸로, 낙수에 빠져 죽어 수신(水神)이 되었고, 직녀는 하느님의 손녀로, 서쪽 하늘에서 옷감을 짜는 일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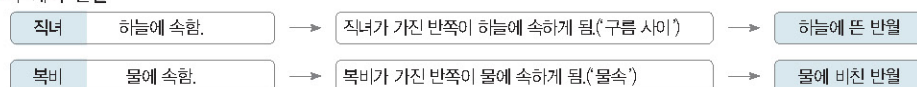
• 화자의 연상 과정



• ‘반월’이 생긴 내력



• 두 개의 ‘반월’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반월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반월이 하늘에 걸려 있던 동근 옥거울이 반으로 쪼개져서 생긴 것이라고 상상한다. 여기서 옥거울은 밝고 동근 달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차지하려는 설화 속 여인들(하늘에 속한 직녀와 물에 속한 복비)의 다툼 때문에 반으로 쪼개져 반은 하늘에, 반은 물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의 반월과 물에 비친 반월의 아름다움을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양연(1877~1853) 조선의 문신. 시에 뛰어나고 성리학에 정통하였음. 시문집으로 『임연당집』이 있으며, 문장이 법도에 맞고 간결하여 후학들이 다투어 암송하였다고 함.

작품의 종합적 이해

[01~13] 두 편의 시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 01 「찬기파랑가」는 향찰[★] 표기로 전해지는 10구체 향가이다.
- 02 「찬기파랑가」는 대상에 대한 예찬과 추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03 「찬기파랑가」는 추상적인 의미를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04 「찬기파랑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05 「찬기파랑가」는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06 「찬기파랑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7 「찬기파랑가」의 화자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비애를, 재회에 대한 의지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 08 「반월」은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한시이다.
- 09 「반월」은 자연물을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10 「반월」은 사물의 변화를 통해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11 「반월」에서 ‘복비와 직녀’는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 12 「반월」은 자연의 모습을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 13 「반월」의 4구는 하늘의 반월과 물에 비친 반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운 있게 표현하고 있다.

★ 향찰(향札):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 추모(追慕):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

시어의 의미 이해

14 「찬기파랑가」에 사용된 시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달	(고루함.★ / 고매함.★)
물	(깨끗함. / 친근함.)
젓나무 가지	(송고함.★ / 완고함.★)

기파랑의 인품

★ 고루(固陋)하다: 낮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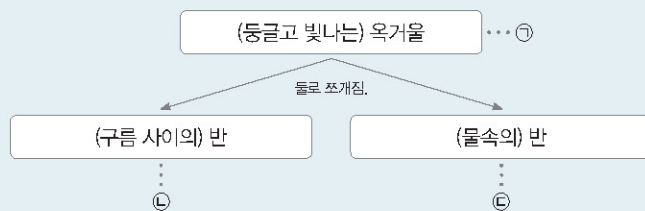
★ 고매(高邁)하다: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 송고(崇高)하다: 뜻이 높고 고상하다.

★ 완고(頑固)하다: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시어의 의미 이해

15 「반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쓰시오.



★ 옥거울(玉거울): 옥으로 만든 거울.

★ 물로 뜨개질(물로 뜨개질): 물에 비친 반월.

★ 구름 사이의 반(구름 사이의 반): 구름에 비친 반월.

★ 물속의 반(물속의 반): 물에 비친 반월.

★ 둥근달(둥근달): 둥근달.

★ ㉡: 하늘의 반월, ㉢: 물에 비친 반월

수능특강 엮이기 문제

소재의 의미 이해

1

‘달’을 중심으로 「찬기파랑가」와 「반월」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기파랑가」와 「반월」 모두 ‘달’에 대한 감상을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 ② 「찬기파랑가」와 「반월」의 화자는 모두 작품의 도입 부분에서 ‘달’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 ③ 「찬기파랑가」와 「반월」 모두에서 ‘달’은 밝게 빛나 사물을 비추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④ 「반월」과 달리 「찬기파랑가」에서 ‘달’은 대상의 인품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⑤ 「찬기파랑가」와 달리 「반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이라는 소재에만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주목(注目)하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출제 예감

작품의 종합적 감상

2

「찬기파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와 재회에 대한 소망이 시작(詩作)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대상과 함께했던 과거와 그렇지 못한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대상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따르고 싶은 인품을 갖춘 존재로 그리고 있다.

◆ 시작(詩作): 시를 지음, 또는 그 시.

출제 예감

작품간의 비교 감상

3

「찬기파랑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몸이 주저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峰)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었다가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

— 성삼문

- ① 「찬기파랑가」는 대상을, 〈보기〉는 화자 자신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군.
- ② 「찬기파랑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와 대상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었군.
- ③ 「찬기파랑가」의 ‘낭 - 잣나무 가지’는 〈보기〉의 ‘이 몸 - 낙락장송’과 대응되는군.
- ④ 「찬기파랑가」의 ‘눈’과 〈보기〉의 ‘백설’은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군.
- ⑤ 〈보기〉의 ‘독야청청’에 담긴 태도는 「찬기파랑가」의 ‘눈이라도 덮지 못할’에 담긴 것과 통하는군.

◆ 성삼문, 「이 몸이 주저 가서」

갈래	평시조
성격	의지적, 지사적, 비판적
주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의
특징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낙락장송(落落長松): 가지가 길게 죽죽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 만건곤(滿乾坤)하다: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푸름.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제 예감

화자의 태도 이해

4 「찬기파랑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흐느끼며 바라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 ②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갔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지금 ‘달’이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 ③ ‘수풀’을 보고 ‘기랑의 모습이옵시’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기랑’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냥이 지니시던 / 마음의 갓을 쫓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냥’이 보여 주었던 품격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
- ⑤ ‘눈이라도 덮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고 있는 것 같아.

수능특강 엮보기 문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5 <보기>를 참고하여 「반월」을 감상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기 |

북비는 중국 전설의 인물인 복희씨의 딸로, 낙수에 빠져 죽어 수신(水神)이 되었고, 직녀는 하느님의 손녀로, 서쪽 하늘에서 옷감을 짜는 일을 한다. 북비는 물에 속한 인물, 직녀는 하늘에 속한 인물이다.

◆ 수신(水神):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

- ① 화자는 구름 사이에 반월이 있고 물속에도 반월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풍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것 같아.
- ② 반월의 모양을 보며 둥근달이 반으로 쪼개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달을 쪼개질 수 있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 옥거울이라는 비유도 떠올랐을 거야.
- ③ 맞아. 하늘에 떠 있는 밝고 둥근 달을 옥거울에 비유했잖아. 밝고 빛나면서도 쪼개질 수 있는 사물 말이야.
- ④ 옥거울에서 화장으로, 화장에서 여인으로 생각이 이어지면서 설화 속 여인인 북비와 직녀가 떠올랐을 거야. 아름다움에 대한 여인들의 집착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지.
- ⑤ 결국, 직녀와 북비의 다툼으로 옥거울이 둘로 쪼개져서 반쪽은 직녀가 속한 하늘에, 나머지 반쪽은 북비가 속한 물에 있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로군.

◆ 풍광(風光):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서답형 문제

6 「찬기파랑가」에서 다음의 ㉠, ㉡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	↔	㉡	...
푸른색		흰색	... 시어
대상의 고고한 인품		시련이나 불의, 유혹	... 색채 이미지
			... 함축된 의미

㉠: _____, ㉡: _____

서술형 문제

7 「반월」의 4구에서 표현하고 있는 풍경을 3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찬기파랑가」 핵심 정리

갈래	10구체 향가	화자	기파랑을 추모하는 사람
성격	추모적, 예찬적, 애상적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과 추모		
구성	• 1~5구: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 6~8구: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		
	• 9~10구: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 예찬		

▶ 「찬기파랑가」 특징 정리

-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지는 10구체 향가이다.
- 대상에 대한 예찬과 추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3단 구성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낙구에서 감탄사를 통해 사상을 집약하고 있다.
- 대상의 인품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달, 물, 잣나무 가지'
-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잣나무 가지' ↔ '눈'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이여', '아아'

▶ 「찬기파랑가」 작품 감상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인 충담사가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드러내는 천상(1~3구)과 지상(4~10구)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기파랑의 높은 뜻과 인품을 예찬·추모하고 있다. 기파랑의 인품됨을 '달, 물,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으며, 화자의 정서를 영탄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찬기파랑가」 소재의 의미

달	높고 밝음.	→	고매함.	기파랑의 인품
물	맑고 깨끗함.		고결함.	
잣나무 가지	높고 굳셈.		송고함. / 기개	
↕				
눈	덮으려 함. / 고통을 줌.	→	시련 / 유혹 / 불의	

◆ 기개(氣概):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 「반월」 핵심 정리

갈래	한시(칠언 절구)	화자	반달이 생긴 내력을 상상하는 사람
성격	비유적, 낭만적, 서정적		
주제	반월의 신비한 아름다움		
구성	• 1구(기): 벽공에 걸린 옥거울(둥근달)		
	• 2구(승): 밝게 빛나서 화장에 유용함.		
	• 3구(전): 옥거울을 가지려는 다툼		
	• 4구(결): 반으로 쪼개진 옥거울(반월)		

▶ 「반월」 특징 정리

- 반월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시이다.
- 자연물을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둥근달' ↔ '옥거울'
- 자연의 모습을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 '반월의 모습' - 복비와 직녀의 다툼으로 생김.
- 4구에서는 반월의 모습을 여운 있게 묘사하고 있다.

▶ 「반월」 작품 감상

하늘에 뜬 반월과 물에 비친 그 그림자를 본 화자가, 그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풍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반월이 밤하늘에 걸려 있던 둥근 옥거울이 반으로 쪼개져서 생긴 것이라고 상상한다. 여기서 옥거울은 밝고 둥근 달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차지하려는 설화 속 여인들(하늘에 속한 직녀와 물에 속한 복비)의 다툼 때문에 반으로 쪼개져 반은 하늘에, 반은 물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의 반월과 물에 비친 반월의 아름다움을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총답사, 「찬기파랑가」

01 대상에 대한 예찬과 추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10구체 향가이다.

02 3단 구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낙구에서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3단 구성: 1~5구(예) → 6~8구(원지) → 9~10구(예찬) / 낙구의 감탄사 '아아'

03 대상의 인품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의 속성		→	기파랑의 인품	
달	높고 밝음.		고매함.	
물	맑고 깨끗함.		고결함.	
잣나무 가지	높고 굳셈.		송고함 / 기개	

04 시적 대상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따르고 싶은 인품을 갖춘 존재로 그리고 있다.

▶ '남이 지나시던 /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 대상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

05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잣나무 가지(푸른색 / 대상의 고고한 인품) ↔ 눈흰색 / 시현이나 물의, 유혹

06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이여', '아아'

07 대상이 남긴 자취를 천상의 풍경과 지상의 풍경으로 교차하면서*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의 시선이 '위 → 아래 → 위'로 이동하고 있다.

천상의 풍경	→	지상의 풍경	
1~3구: 위 하늘의 달		4~8구: 아래 땅의 물가, 자갈 벌	9~10구: 위 머리 위에서 하늘을 향해 뻗은 잣나무 가지

* 교차(交叉)하다: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 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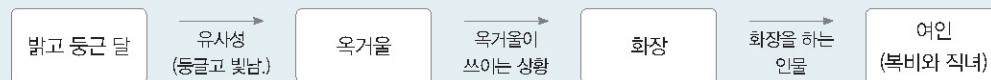
이양연, 「반월」

08 반월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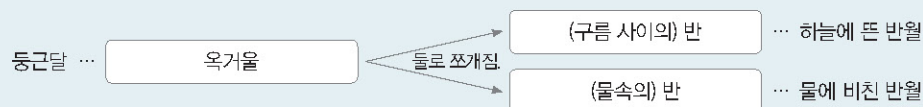
09 자연물을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둥근달 → 옥거울

10 자연의 모습을 설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 반월의 모습 - 복비와 직녀의 다름으로 생김.

11 '둥근달 → 옥거울 → 화장 → 여인(들의 다툼)'으로 연상이 진행되고 있다.



12 직녀와 복비의 다툼으로 하늘의 옥거울(둥근달)이 둘로 쪼개져서 반쪽은 직녀가 속한 하늘에, 나머지 반쪽은 복비가 속한 물에 있게 된 것이 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3 4구에서는 구름 사이에 반월이 있고 물속에 그 반월이 비치고 있는 모습을 여운 있게 묘사하고 있다.

PART

3

현대시

01. 초혼_김소월
02. 이별가_박목월
03. 노정기_이육사
04. 질투는 나의 힘_기형도
05. 우리지오 가까운 항구에서_이육사
06. 흑백 사진-7월_정일근
07. 성탄제_오장환
08. 새 1_박남수
09. 장수산 1_정지용
10. 고고_김종길
11. 거문고_김영랑
12. 굴동리 일박_곽재구
13. 북방에서-정현웅에게_백석
14. 나비와 철조망_박봉우
15. 화체개현_조지훈 / 누에_최승호
16. 낙화_이형기
17. 과목_박성룡
18. 산_김광섭
19. 가을 뚝갈나무 숲_이준관
20. 장자를 빌려-원통에서_신경림
21.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_고재종

※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초혼' 의식을 소재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탄과 절망을 격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임의 죽음을 암시함. → 반복법, 영탄법

1연 임의 부재로 인한 절규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②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및 의미(임에 대한 그리움) 강조

2연 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안타까움

③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해가 질 무렵(소멸의 이미지-이별의 시간을 의미함). 낮과 밤의 경계(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함.)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④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고립과 단절의 공간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3연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허무감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남.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⑤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삶(화자)과 죽음(임)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절망감을 느낌.

4연 삶과 죽음 사이의 절망적 거리감

선 채로 이 자리에 ⑥ 돌이 되어도
그리움과 한의 응결체 - 망부석 모티프와 연결됨.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5연 응집된 슬픔과 임을 향한 처절한 그리움

• '돌'의 의미와 망부석 설화

돌
죽은 임을 애타게 부르며 그리워하는 화자의 설움과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의 극한이 응축된 소재로, 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지의 표현임.

← 모티프

망부석 설화
타관이나 외국에 나가게 된 남편과 헤어진 아내가 높은 산(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설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함.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름으로써 그 사람을 소생하게 하려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시적 착상을 얻어, 죽은 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인해 죽은 임을 목 놓아 부르지만, 임과 화자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숙명적인 거리가 존재한다. 이에 화자는 인간으로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러한 숙명적인 단절(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반복과 영탄을 통해 화자의 절망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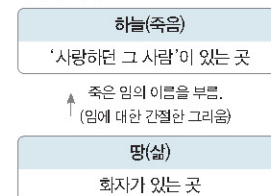
*김소월(1902~1934) 토속적이며 전통적인 정한의 세계를 수준 높은 서정적 언어로 형상화함. 민요조의 서정적인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민족적 현실에 대해 참여적인 목소리를 낸 작품도 있음.

• '초혼'의 의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던 옷을 갖고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 서서,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북쪽을 향하여 '아무 동네 아무개 복(復)'이라고 세 번 부름.

죽은 이의 혼을 불러 그를 되살리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죽은 이를 땅에 묻어야 하는 슬픔과 허탈감을 드러냄.

• 화자의 처지



시를 이야기로 풀기

- 1연 나는 사랑하는 임을 불러 보지만 임은 대답이 없어.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임을 애타게 부르고 있어.
- 2연 임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임은 내 곁을 떠나고 말았구나.
- 3연 해가 지는 시간에 홀로 떨어진 산에 올라 임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며 슬피 울었어.
- 4연 서러움이 북받쳐 임의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임이 있는 하늘과 내가 있는 땅의 사이가 너무 넓어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 5연 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선 채로 돌이 되어 죽더라도 나는 임을 영원히 그리워하며 기다릴 거야.

작품의 종합적 이해

[01~10]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 01 7·5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 02 반복과 영탄을 통한 걱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03 전통 의식을 소재로 하여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4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05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06 설화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07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8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09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와 조응을 이루고 있다.
- 10 화자는 임의 죽음을 자책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 걱정적(激情的):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 자책(自責)하다: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다.

시어 및 시구의 의미 이해

[11~16]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1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임의 ()을 암시하는 것이다.
- 12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임에 대한 못다 한 ()의 고백을 의미한다.
- 13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린 시간은 낮과 밤의 경계인 해 질 무렵으로, ()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 14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15 ‘하늘’은 죽은 임이 있는 곳이고 ‘땅’은 화자가 있는 곳으로, 화자는 두 공간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며 ()을 느끼고 있다.
- 16 ‘()’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한의 응결체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시간적 배경의 의미 이해

- 17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설명이 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 / 점심 / 저녁)이다. 이는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이성과 감성 / 삶과 죽음 /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상징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 예감

표현상 특징 이해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답답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바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설화적 모티프^{*}를 빌려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모티프(motif): 회화, 조각, 소설 따위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등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 장식에서는, 여러 무늬가 하나의 무늬로 통합되어 그 연속에 의해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2003 3월 고3 학평 변형

작품의 종합적 이해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성찰과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화자는 대상과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 ④ 반어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삶을 즐기고자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수능특강 옛보기 문제

작품 간의 비교 감상

3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떡은 벌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 정지용, 「유리창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묘사적, 애상적
주제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특징	· 감정의 대위법을 통해 감정을 객관화하여 제시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함축성을 높임.

- ① 윗글과 달리 <보기>는 대상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윗글은 화자가 매개체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 ③ 윗글은 저녁, <보기>는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보기>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대상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단절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수능특강 엮보기 문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전통 장례 절차의 일부인 고복 의식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초혼’은 고복 의식을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초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로, 죽은 이의 혼을 불러 그를 되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이 의식은 죽은 이를 땅에 묻어야 하는 슬픔과 허탈감에서 나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실제 고복 의식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허탈감, 절망감으로 절규하는 화자의 심정은 이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초혼’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 절규(絶叫)하다: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다.

- 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는 것은 고복 의식을 행하여 화자가 임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로군.
- ② 화자는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임의 혼을 부르는 초혼 행위를 한 것이군.
- ③ 화자는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죽은 임을 떠올리며 임을 부르는군.
- ④ 화자가 ‘설움에 겹도록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임을 잃은 절망감 때문이로군.
- ⑤ 화자는 ‘돌’처럼 굳은 각오를 다지며 죽은 임을 되살리고자 하는군.

출제 예감

시구의 의미 이해

5 ①~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의 죽음을 인지하고* 절규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 반복을 통해 임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 ③ ㉢: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시간으로,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④ ㉣: 하늘과 땅의 경계로,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이다.
- ⑤ ㉤: 장애물로 인해 임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 인지(認知)하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서답형 문제

6 다음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이 사용된 시행을 윗글에서 찾아 4어절로 쓰시오.

감정 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타인이나 동물, 물건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형 문제

7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되,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쓸 것.
- 망부석 설화와 연결 지어 100자 이내로 쓸 것.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화자	사랑하는 임을 여원 사람
성격	전통적, 민요적, 격정적, 애상적		
주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임의 부재로 인한 절규		
	• 2연: 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안타까움		
	• 3연: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허무감		
	• 4연: 삶과 죽음 사이의 절망적 거리감		
	• 5연: 응집된 슬픔과 임을 향한 처절한 그리움		

◆ 응집(凝集)되다: 한군데에 엉겨서 뭉치다.

◆ 작품의 전개 과정

1연	2연	3연	4연	5연
임의 부재로 인한 절규	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안타까움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허무감	삶과 죽음 사이의 절망적 거리감	응집된 슬픔과 임을 향한 처절한 그리움
죽음으로 인한 임의 부재를 인식하고 절규함.	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것에 회한을 느낌.	임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과 허무감을 느낌.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절망감을 느낌.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 응축되어 임에 대한 사랑이 영원할 것을 다짐함.

◆ 특징 정리

- 7·5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설움’
- 반복과 영탄을 통한 격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등
- 전통 의식을 소재로 하여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설화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돌’ (망부석 설화)
-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작품 감상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름으로써 그 사람을 소생하게 하려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시적 착상[◆]을 얻어, 죽은 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인해 죽은 임을 목 놓아 부르지만, 임과 화자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숙명적인 거리가 존재한다. 이에 화자는 인간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러한 숙명적인 단절(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반복과 영탄을 통해 화자의 절망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착상(着想):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 또는 그 생각이나 구상.

◆ 시간적·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
의미	낮과 밤의 경계(삶과 죽음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고립과 단절의 공간)

정서	임을 잃은 슬픔, 상실감, 허무함, 무력감을 느낌.
----	------------------------------

◆ ‘돌’의 의미와 망부석 설화

돌	망부석 설화
죽은 임을 애타게 부르며 그리워하는 화자의 설움과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의 극한이 응축된 소재로, 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지의 표현임.	타관 [◆] 이나 외국에 나가게 된 남편과 헤어진 아내가 높은 산(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설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함.

◆ 타관(他官): 자기 고향이 아닌 고향.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 01 7·5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 02 반복과 영탄을 통한 걱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등
- 03 전통 의식을 소재로 하여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4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설움’
- 05 설화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돌’ 양부석 실패
- 06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07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와 조응[◆]을 이루고 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
의미	낮과 밤의 경계(삶과 죽음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고립과 단절의 공간)
↓		
정서	임을 잃은 슬픔, 상실감, 허무함, 무력감을 느낌.	

◆ 조응(照應):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 08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09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임에 대한 못다 한 사랑의 고백을 의미한다.
- 10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린 시간은 낮과 밤의 경계인 해 질 무렵으로, 소멸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 11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슬피 우는 ‘사슴의 무리’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12 ‘하늘’은 죽은 임이 있는 곳이고 ‘땅’은 화자가 있는 곳으로, 화자는 두 공간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13 ‘돌’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한의 응결체[◆]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하늘(죽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있는 곳
↕ ‘너무 넓구나’(절망감)	
땅(삶)	화자가 있는 곳

◆ 응결체(凝結體): 굳어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물체. 또는 엉겨 뭉친 덩어리.

돌	죽은 임을 애타게 부르며 그리워하는 화자의 설움과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의 극한이 응축된 소재로, 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지의 표현임.
---	---

PART

4

고전 산문

- 01. 천자를 이긴 아이_작자 미상
- 02.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_작자 미상
- 03. 수성지_임제
- 04. 위경천전_권필
- 05. 달천몽유록_윤계선
- 06. 조웅전_작자 미상
- 07. 이대봉전_작자 미상
- 08. 춘향전_작자 미상
- 09. 서대주전_작자 미상
- 10. 정을선전_작자 미상
- 11. 삼선기_작자 미상
- 12. 송경운전_이기발

01

천자를 이긴 아이 _ 작자 미상

※ 중국의 천자가 제시한 어려운 과제를 조선의 아이가 지혜로 물리친다는 내용의 민담으로,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앞부분 출처 | 중국의 천자^①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땅 전체를 담을 바람막이 포장^②과 두만강의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는 명을 내린다. 조정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임금님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승의 아들인 열두 살배기 아이가 임금님을 찾아가 본다.

“그러니 그거 아는 인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열두 살 먹은 정승의 아드님이 하는 소리가,

“제가 가겠습니다.” / 그랬어요.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크게 귀 주랴. 그러면 포장을 얼마나 크게 해 주랴?”

그러니까는, / “가마도 싫고 포장도 싫고, 자 하나하구 주발^③ 하나하구만 주십시오.”

⑦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다 임금님께서 해 주시니깐 그거를 이 도포 소매 안에다 넣어 가지고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 중국을 건너가 중국 천자한테로 들어서니까는,

▶ 아이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 감.

“조선서 들어온 사신입니다 — 사신입니다.” / 하고 아뢰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첩서(牒書)^④ 내린 거를 알고 왔느냐?”

‘중국 땅 전체를 담을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는 명

“예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 뭘 해 가지고 왔느냐? 가마 귀 가지고 왔느냐?”

“예.” / “그러면 포장도 해 가지고 왔느냐?”

“예.” / “그러면 가지고 들어오나라.”

하니까는, 이 도포 소매에서 자 하나하고 주발 하나하고 내놔 줬어.

“그래 이게— 이걸루 어떻게 두만강을 재치며 이 바람을 막느냐?”라고 하니깐,

“제아무리 천재라도 중국 땅이 몇 자 몇 치가 되는 줄 알아야 포장을 똑같이 지어 올 겁니다. 제아무리 천재래

도…… 두만강에 물이 몇 백에 몇 말이 되는 거를 재 주십시오. 글썽 이 자로는 재서 적어 주시고, 두만강은

이 주발로 퍼서 물을 재 주신다면, 제가 우리 조선에 나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해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과제 해결의 선결 조건 -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한 사람에게 역으로 불가능한 과제를 부과함.

▶ 불가능한 과제에 불가능한 선결 조건을 제시함.

그러니깐 천자가 무릎을 딱 치면서,

불가능한 요구를 불가능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물리친 아이의 지혜(과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함)에 감탄함.

“아, 조선도 인재가 있구나!”

그러고 그때 벼슬을 줬대는 거예요.

아이의 지혜에 대한 현실적·세속적 보상

▶ 아이의 지혜에 감복한 천자가 상을 내림.

어휘 풀이 ① 천자(天子): 천제(天帝)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 ② 포장(布帳): 베, 무명 따위로 만든 휘장. ③ 주발(周鉢): 놋쇠로 만든 밥그릇. ④ 첩서(牒書): 옛날에 쓰던 공문서의 하나.

• 인물 설정의 의도와 효과

천자	어른	중국	힘 있는 사람
↓			
아이	아이	조선	힘없는 사람



- 정승의 아들이 승리함. →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
-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당당히 맞서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통쾌함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아이의 지혜’, ‘천자의 시험’ 등을 모티브로 한 민담으로, 천자의 어처구니없는 시험에 맞서 아이 역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대응하는 이야기이다. 아이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그대로 역이용하여 되물려줌으로써 천자의 시험을 해결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당당히 맞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그려 통쾌함을 주는 동시에,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구술되는 내용을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어체, 군말, 반복적 표현 등 화자(구술자)의 말버릇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종합적 이해

[01~09]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 01 ‘천자의 시험’, ‘아이의 지혜’를 모티프*로 한 민담*이다.
- 02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아이의 지혜를 담고 있다.
- 03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구어체*로 서술되고 있다.
- 04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05 전기적 요소*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 06 같은 말의 반복과 군말*의 사용이 드러난다.
- 07 ‘자’와 ‘주발’이라는 사물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다.
- 08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09 ‘천자(어른 / 중국 / 힘 있는 사람)’와 ‘정승의 아들(아이 / 조선 / 힘없는 사람)’의 대결에서 정승의 아들이 승리한다는 서사 구조를 통해 통쾌함을 주고 있다.

- ★ 모티프(motif): 회화, 조각, 소설 따위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 장식에서는, 여러 무늬가 하나의 무늬로 통합되어 그 연속에 의해서 하나의 제형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이르기도 한다.
- ★ 민담(民譚):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 ★ 구술(口述): 입으로 말함.
- ★ 채록(採錄)하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하다.
- ★ 구어체(口語體):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
- ★ 전기적 요소(傳奇的要素): 초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르는 말.
- ★ 군말: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작품의 내용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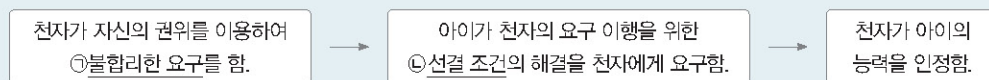
[10~18]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 10 천자는 중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 도움을 요청한다.
- 11 아이의 능력을 알고 있던 조선의 임금의 아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긴다.
- 12 아이는 ‘자’와 ‘주발’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난다.
- 13 아이는 ‘포장’과 ‘가마’를 만들기 위해 널리 재료를 구한다.
- 14 아이는 ‘포장’과 ‘가마’를 만들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다.
- 15 아이는 천자가 요구한 문제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 해결을 천자에게 요구한다.
- 16 천자는 아이가 제시한 선결 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한다.
- 17 아이는 천자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18 천자는 아이의 지혜에 감복하여* 벼슬을 내린다.

- ★ 이행(履行): 실제로 행함.
- ★ 선결 조건(先決條件):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조건.
- ★ 감복(感服)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내용 전개 과정 이해

19 이 작품의 내용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오.



㉠: _____, ㉡: _____

출제 예감

작품의 내용 이해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임금님은 천자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② 임금님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중국으로 떠나는 아이를 보고 미래의 사태를 염려한다.
- ③ 아이는 재료 부족으로 인해 ‘포장’과 ‘가마’를 만들 수 없는 사정을 천자에게 설명한다.
- ④ 천자는 ‘포장’과 ‘가마’ 대신 ‘자’와 ‘주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의 주장에 당혹감을 느낀다.
- ⑤ 아이는 중국 땅과 두만강 물의 측량이라는 불가능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수능특강 옛보기 문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어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가 해결한다는 지혜담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된 설화(민담)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담에 등장하는 아이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신화 속 영웅의 어릴 적 모습과 유사하지만, 신화에서와는 달리 세속화된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이가 대결하는 상대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 권력 관계의 우위에 있는 인물이고,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대결은 그 인물의 세속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아이의 능력도 초월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 재능 정도로 그려진다. 또한 능력을 입증한 아이가 성취하는 것도 높은 지위나 재산 등 세속적 성공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는 신화와 구별된다.

- ① 아이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신화 속 영웅의 어릴 적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천자는 아이와 대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신적 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대결은 천자의 세속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아이가 세속적 권력 관계의 우위에 있는 천자와 대결하면서 발휘한 지혜는 인간적 재능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이가 천자로부터 벼슬을 받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성취한 세속적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출제 예감

서술상 특징 이해

3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구술자는 서사를 진행시키는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술된 내용인 만큼 구술 문학의 특징 또한 드러나고 있다.

- ① 구술자가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④ 구어적 상황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 ⑤ 구술 내용을 가감[㉢] 없이 채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 수행(遂行)하다: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

◆ 경과(經過): 일이 되어 가는 과정.

◆ 군더더기: 쓸데없이 덧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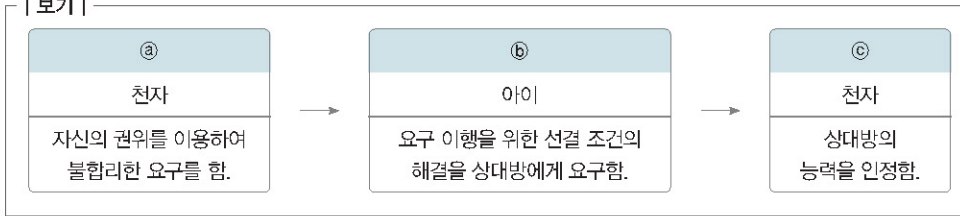
◆ 가감(加減): 더하거나 빼는 일.

수능특강 엮보기 문제

대화의 전개 양상 이해

4 읽글에 나타난 대화의 전개 양상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① ‘가마’와 ‘포장’을 바치라는 천자의 요구는 ㉠에 해당한다.
 ② 아이가 천자에게 ‘자’와 ‘주발’을 주면서 그것으로 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을 재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에 해당한다.
 ③ ㉡에서 아이는 자신이 제시하는 선결 조건에 대해 천자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④ ㉡에서 ㉢로 넘어가면서 천자는 자신의 요구와 아이가 제시한 선결 조건이 상호 모순됨을 자각했을 것이다.
 ⑤ ㉢는 천자가 자신의 요구가 불합리함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제 예감

작품의 형상화 방안 이해

5 읽글을 영상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이가 임금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임금님을 연기하는 배우는 냉소적[★] 표정을 짓는 것이 좋겠어.
 ② 조선을 떠나는 아이의 모습에 중국의 천자를 만나는 모습을 오버랩[★]하여 장면의 전환과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
 ③ 천자와 아이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천자는 높은 위치에 앉히고 아이는 낮은 위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그려야겠어.
 ④ 천자와 아이가 대화하는 장면 중에 아이가 중국 땅과 두만강을 둘러보는 장면을 삽입하여 아이의 노력이 부각되도록 해야겠어.
 ⑤ 마지막 부분에서 천자가 준 벼슬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천자의 은혜라는 주제가 부각되도록 해야겠어.

★ 냉소적(冷笑的):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 오버랩(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클로즈업(close-up):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서답형 문제

6 읽글의 아이의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아이는 천자가 낸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천자가 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을 해결한 것이다.

서술형 문제

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8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 작품과 같은 아이의 지혜담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험을 제시하는 중국의 인물은 천자 등과 같이 되도록 높게 설정되고, 시험을 해결하는 조선의 인물은 아이 등과 같이 되도록 낮게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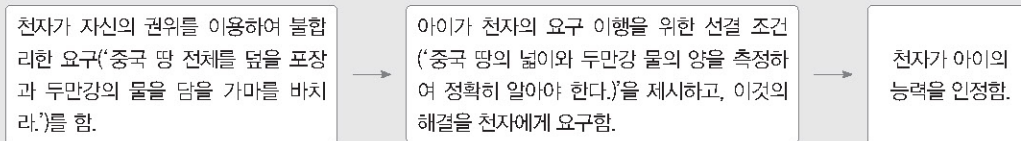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설화 [◆] , 민담
성격	교훈적
주제	어른을 뛰어넘는 아이의 지혜(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
특징	•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구어체로 진술됨. •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됨. • 같은 말의 반복과 군말의 사용이 드러남. • 천자와 아이의 대결에서 아이가 승리한다는 서사 구조를 통해 통쾌함을 줌.

◆ 설화(說話):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신화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 민족의 시조 등에 관한 이야기
전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등에 관한 이야기
민담	흥미 위주의 이야기

◆ 작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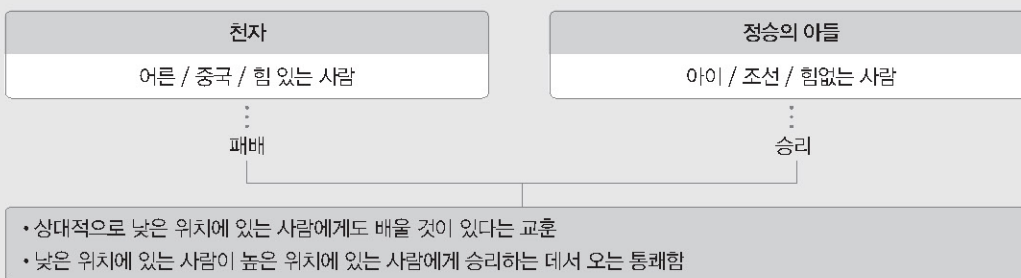


◆ 전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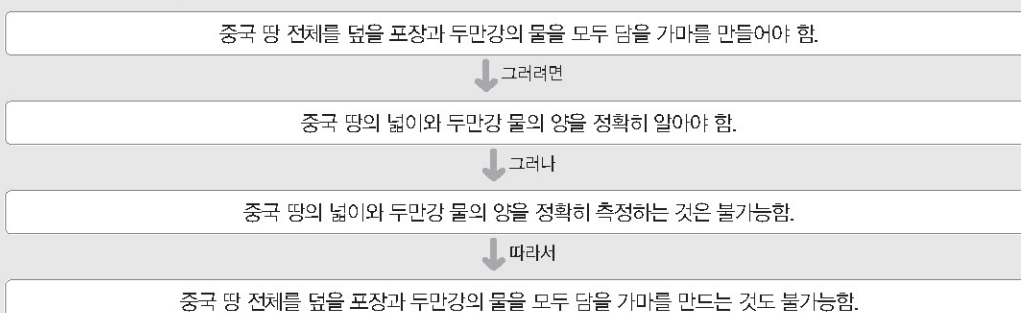
옛날에 중국의 천자가 조선의 임금에게 난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풀 사신을 보내라고 한다. 천자는 중국의 바람을 다 막을 포장과 두만강(豆滿江) 물을 다 담을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면 중국의 충신으로 삼겠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에는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재가 없었다. 마침 어머니를 통하여 나라의 근심을 알게 된 재상의 어린 아들이 임금을 찾아가 자신을 사신으로 보내 달라고 청한다. 천자의 요구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임금에게 자 하나와 주발 하나를 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자와 주발을 가지고 중국으로 간다. 포장과 가마를 내놓으라는 천자에게 아이는 자와 주발을 내밀며, 중국의 땅의 크기가 몇 자 몇 치인지 알아야 포장을 만들 것이니 자로 재서 알려 주고, 두만강 물의 양이 몇 말이나 되는지 알아야 가마를 만들 것이니 주발로 퍼서 알려 달라고 한다. 아이의 말을 들은 천자는 조선에도 인재가 있다고 감탄하며 아이에게 벼슬을 준다.

◆ 난제(難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사건

◆ 서사 구조와 효과



◆ 아이의 지혜에 담긴 논리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 01 ‘아이의 지혜’, ‘천자의 시험’ 등을 모티프로 한 민담이다.
- 02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아이의 지혜담이다.
- 03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구어체로 진술되고 있다.
- 04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05 같은 말의 반복과 군말의 사용이 드러난다.
▶ ‘그래서 그거를 참 다 임금님께서 해 주시니깐 그거를 이 도포 소매 안에 넣어 가지고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 중국을 건너가 중국 천자한테로 들어서니까는,’
- 06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07 ‘천자(어른 / 중국 / 힘 있는 사람)’와 ‘정승의 아들(아이 / 조선 / 힘 없는 사람)’의 대결에서 정승의 아들이 승리한다는 서사 구조를 통해 통쾌함을 주고 있다.
- 08 천자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맞서 아이 역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대응하고 있다.
- 09 천자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선에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
▶ ‘중국 땅 전체를 덮을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
- 10 아이는 문제 해결을 자청하고는* ‘자’와 ‘주발’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난다.
- 11 아이는 천자가 요구한 문제에 대해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그 해결을 천자에게 요구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천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요구(‘중국 땅 전체를 덮을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를 함.

→ 아이가 천자의 요구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중국 땅의 넓이와 두만강 물의 양을 측정하여 정확히 알아야 한다.’)을 제시하고, 이것의 해결을 천자에게 요구함.

→ 천자가 아이의 능력을 인정함.

- 12 아이의 말에 담긴 궁극적 의도는 천자의 요구가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하여 천자 스스로 요구를 철회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땅 전체를 덮을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모두 담을 가마를 만들어야 함.

↓ 그러려면

중국 땅의 넓이와 두만강 물의 양을 정확히 알아야 함.

↓ 그러나

중국 땅의 넓이와 두만강 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중국 땅 전체를 덮을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모두 담을 가마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함.

- 13 천자는 아이의 지혜에 감복하여 벼슬을 내리는데, 이는 천자 스스로 자신의 요구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철회했음을 의미한다.
- 14 아이는 천자가 낸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천자가 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처구니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 **자청(自請)하다**: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하다.

★ **철회(撤回)하다**: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다.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상)

정답 및 해설

PART 1 | 교과서 개념 학습

01 추일서정

본문 010~01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특정한 인물이 청자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 05 낮설고 참신한 비유를 동원하여 가을의 도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된 풍경은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황량하고 삭막한 것이다.
- 07 도시적·이국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09 자연물과의 비교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내신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④ 4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1 자연물인 ‘낙엽’, ‘길’을 인공물인 ‘풀—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구겨진 벡타이’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황량함, 초라함,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작과 끝 부분의 의미나 구조를 유사하게 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의미를 강조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거나 변주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가을’, ‘일광(日光)’, ‘두 시’ 등 시간과 관련된 시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③ ‘풀—란드’, ‘자욱—한’, ‘호울로’ 등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2 구불구불(구깃구깃)하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길’을 도시적 소재인 ‘구겨진 벡타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길’을 도시적인 이미지와 연관 짓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표현한 것은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기보다는 도시 자체의 초라함이나 황량함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망명정부의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낙엽’을 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낙엽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을이 되어 잎을 모두 떨군 ‘포플라 나무’ 가지의 앙상한 모습을 ‘근골’에 비유하여 황량함과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허공’을 향해 돌팔매를 띄우는 행위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것이므로, ‘허공’은 황량한 생각을 드러내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돌팔매’의 하강 곡선을 ‘고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이 글은 ‘황량한’, ‘고독한’ 등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반면, <보기>는 객관적 상관물인 ‘빈 배’나 ‘ 짝 잃은 갈매기’를 통해 화자의 정서(외로움과 고독)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도시 문명을 황량한 것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보기> 역시 전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혹은 그를 통해 느끼는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으며, <보기>도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에는 ‘오락가락’이라는 의태어가 활용되었지만 이 글에는 의성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02 백구야 놀라지 마라 / 백초를 다 심어도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본문 014~01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자연물인 ‘백구(白鵠)’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을 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 03 화자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상황을 백구와 놀 기회를 얻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12 화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요 개’의 잘못으로 전가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⑤ 4 화자와 개의 표면적 갈등을 통해 화자와 오지 않는 임의 이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 「백구야 놀라지 마라」의 화자는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아 강호(江湖)로 가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을 뿐, 그가 전부터 ‘백구(白鵠)’와 노니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성상(聖上)이 버리시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대나무로 만든 도구의 기능을 이별의 상황과 연결하여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여 개 때문에 임이 오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중장에서 ‘미운 임’과 ‘고운 임’에 대하는 개의 상반되는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2 「백구야 놀라지 마라」에서는 ‘내 아니로다’, ‘예 왔노라’에서, 「백초를 다 심어도」에서는 ‘붓대로다’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구야 놀라지 마라」와 「백초를 다 심어도」에서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자연물에 인간사를 빗대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은 「백초를 다 심어도」에만 해당한다. ④ 설의적 표현은 「백초를 다 심어도」의 종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⑤ 「백구야 놀라지 마라」에서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3 화자에 대한 태도가 아닌, ‘미운 임’과 ‘고운 임’에 대한 ‘요 개’의 태도를 통해,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장에서 여러 개를 기르지만 ‘요 개’가 앞장서며 표면적인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임이 오지 않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해’, ‘버둥버둥’, ‘캉캉’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여남은이나’ 되는 다른 개들과의 비교를 통해 ‘요 개’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중장에서 미운 임과 고운 임에 대하는 ‘요 개’의 대조적인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03 해산 바가지

본문 018~02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몇 개의 삽화를 나열하고 있지도 않고, 과거와 현재에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도 않다.
- 08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시어머니의 친절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는 것일 뿐, ‘나’는 그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10 ‘나’는 ‘차라리 풍오줌 치는 게’ 덜 지겨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 13 ‘나’의 시어머니는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경건한 의식을 행하였다.

내신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③ 4 ‘해산 바가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손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명 존중의 정신을 의미한다.

- 1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해산 바가지에 얽힌 추억을 상기하면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기로 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인공은 대화가 아니라 과거 회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③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작품 내부의 서술자는 맞지만, 사건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⑤ 과거의 장면이 제시되고 있지만 삽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 2 ‘나’가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갖게 된 감정은 동정심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지녔던 시어머니 역시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본 후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려던 마음을 바꾸게 된다. ③ 해산 바가지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사상을 보여 준다. ④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고통과 이에 뒤따르는 감정인 미움이나 피로감으로 인해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려던 ‘나’가 해산 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정신을 떠올리고 이전과 다른 편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으므로, 해산 바가지가 ‘나’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3 ‘나’는 아들, 딸에 상관없이 같은 대접을 받은 것에 서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차별하지 않고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명을 받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어머니는 해산 바가지를 경건하게 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생명의 고귀함과 그 생명 탄생에 대한 경건한 자세’에 해당한다. ② 딸을 낳았고 고집스럽지 않는 것은 당시 일반적이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④ 시어머니가 아름다운 정신(생명 존중의 정신)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시어머니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 드리고 싶어 한다. ⑤ 예전에

는 ‘나’가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어도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살았음을 알 수 있다.

04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엮보다

본문 023~02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7 서술자의 개입은 드러나지 않는다.
- 08 전기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 09 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란과 헤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 혼인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한 것이지, 한양으로 떠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① 4 해진 잠신

- 1 생의 아버지가 생의 종적을 찾을 수 없자 그가 죽은 줄 알고 허장을 쓴 후 탈상까지 마쳤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비현실적 사건이나 초월적 존재와 같은 전기적 요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2 양반인 생은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기생인 자란은 생과의 이별을 매우 슬퍼한다. 하지만 생과 자란의 이러한 모습은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생의 아버지가 생에게 첩을 두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에는 첩을 두는 것이 흔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생인 자란을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들이려는 것을 통해 당시 사회의 신분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생이 자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미처 버릴 것만 같아 자란을 찾아 떠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④ 생이 과거를 치르도록 권유하는 자란의 모습을 통해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생이 과거를 치르는 것은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에 해당한다.

- 3 생은 자란에게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걱정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생이 아버지의 장점을 언급하거나 그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지는 않다. ③ 생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지 않다. ④ 생이 자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생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생각을 감춘다고 볼 수 없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6 비현실적인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몽환적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 08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 12 구포택이 어부 A의 말에 놀라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3 성삼은 거센 풍랑 속에서 부서 떼를 쫓아가는 곰치의 행동을 ‘미친놈’이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의 집념에 감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내신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⑤ 4 ㉘: 목표, ㉙: 욕망

- 1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그렇게’, ‘그래서라우?’ ‘못이라고?’ 등 인물들이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③ ‘배, 뭇, 부서 떼, 그들, 뱃놈’ 등의 단어를 통해 인물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간적 배경이 바닷가임을 알 수 있다. ④ 지시문의 사용이 빈번한 편으로, 이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⑤ 곰치가 거센 풍랑에도 쌍돛대를 달고 부서 떼를 쫓아가다 배가 뒤집혀 어부 A와 B에게 구조되는 사건이 어부 A와 B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 2 뒤에 제시된 성삼의 “미친놈!”이라는 대사로 보아 거센 풍랑 속에서 쌍돛을 달고 고기 떼를 쫓는 곰치의 행동을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곰치의 집념을 존경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어부 A는 곰치를 구조하였다고 말하며 비통하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곰치 외에는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부 A는 도삼에 대해 묻는 구포택의 질문에 난처해하며 성삼의 눈치만 보고 있다. ④ 도삼을 못 봤다는 어부 B의 말에 구포택이 계속 되묻는 것은 도삼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술술이는 도삼과 연철을 다 못 봤다는 어부 A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심하게 오열하고 있다.

- 3 곰치가 자신은 안 죽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집념과 의지를 다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곰치는 아들 도삼이 아니라 만선에 대해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있다. ② 성삼이 곰치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곰치의 아버지와도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도삼의 죽음으로 인해 구포택과 곰치의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도삼의 죽음 이후에도 곰치는 배를 탈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도삼의 죽음이 곰치가 모든 집념과 의지를 잃게 만드는 계기라고 볼 수 없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과 같이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6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이 ~ 소박하고 무던한 한국의 마음씨들을 감싸안고 있다.’에서 연경당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이는 연경당이 환기하는 수수한 분위기를 나타낸 표현이다. 한편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얼마 안 남은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 09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이 장판방에 곁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지금,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를 통해, 글쓴이는 연경당이 빈방으로 남아 있어 그 아름다움이 반감되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14 ‘물론 세계의 각 지역 간에 ~ 주택 문화만은 고격을 고수하지는 것은 아니다.’를 통해 글쓴이가 주택 문화의 고격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① 4 우리 민족이 쌓아 온 생활 문화의 기념탑

- 1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경당이 건축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상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연보랏빛 필터’에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때를 활짝 벗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통해 연경당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② ‘한국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미술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아들딸들이 자라났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사뿐히 고개를 든 ~ 한국의 마음씨들을 감싸안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다만 미끈한 굴도리 팔작집에 알맞은 방주, ~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 주고 있는 듯싶다.’에서 알 수 있다.

- 2 글쓴이는 ‘뛰어난 재래 주택들은 살아 있는 민족 문화재로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을 뿐, 이를 현대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 태곳적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이 고유한 한국 주택의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현재 주택에 충분히 도입되어야 하고,’에서 알 수 있다. ④ ‘아찔든 연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것이라고 ~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바로 이 연경당인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 멋진 논의 주인공들을 적절히 가졌던 것을 자랑해야겠다.’에서 알 수 있다.

- 3 이 글은 연경당을 통해, <보기>는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을 통해 전통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의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는 감고 거문꽃줄 골라 보리니’에만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옛날의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의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다.’에서만 봄보다 가을에 연경당이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만 저고리의



내신대비 전문 100발100중에서 만든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이 내신과 수능을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EBS수능특강>에서 출제되는 학교시험!



문학 (상)/(하)

영어 (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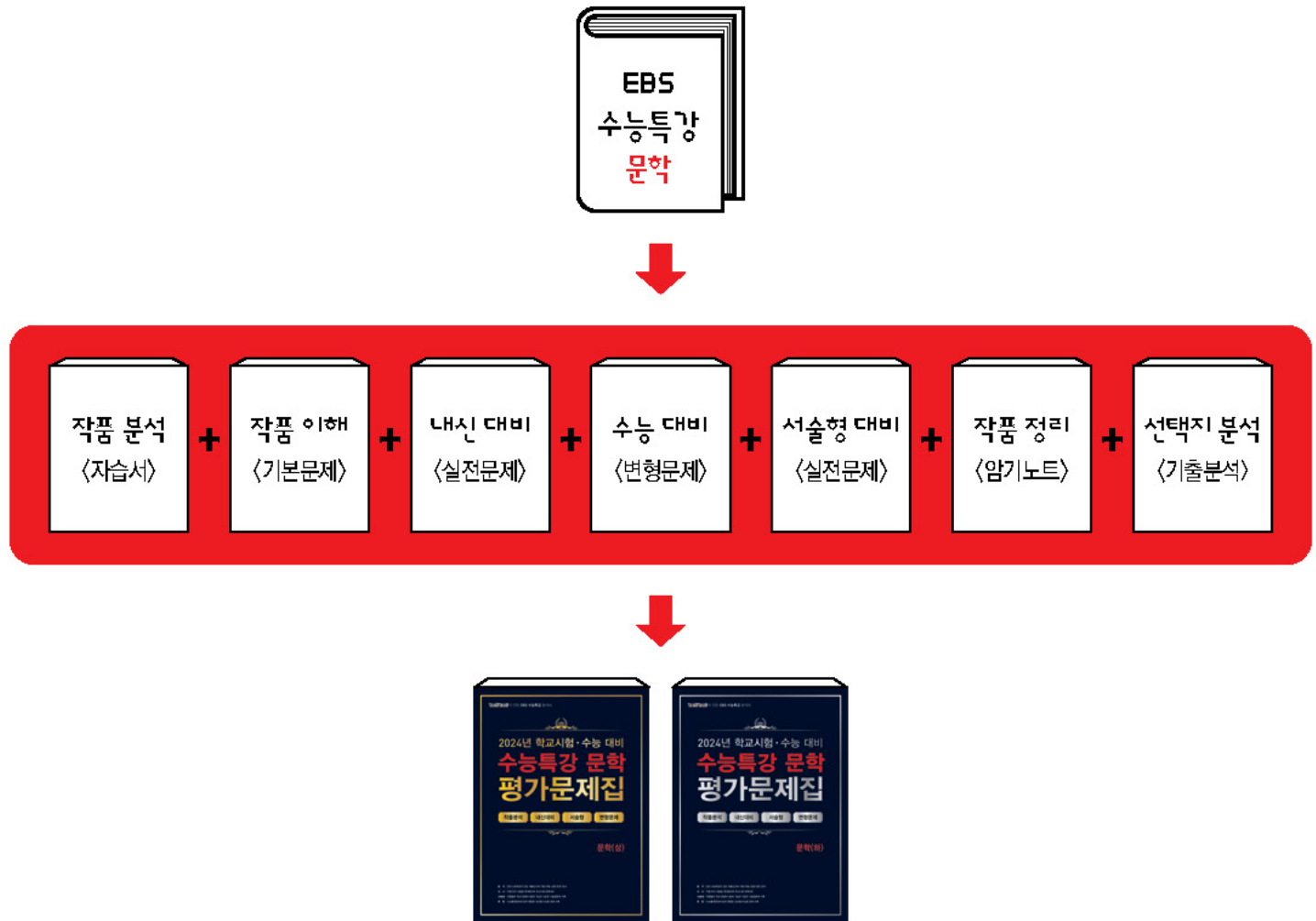
EBS 수능특강에서 직접 출제되는 학교시험!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으로 준비하세요.

- 1 처음 보는 작품과 지문의 분석은 필수!
- 2 선생님이 출제하는 선택지 분석도 필수!
- 3 내신 1등급을 가르는 작품별, 지문별 서술형 문제도 필수!
- 4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는 기본! 수능 출제 원리에 맞는 변형문제로 실전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의 기본 구성



에듀ONE www.100bal.com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상)

항상 연구하는 회사

항상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회사

제안 사항, 불만족 사항, 오류 신고 등 언제나라도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

책임을 다하는 회사

발간 이후에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본 교재의 정답
및 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가 19,000원